

2013년 서울시 자살사망자 통계분석

Analysis of suicide deaths in Seoul ; based on nation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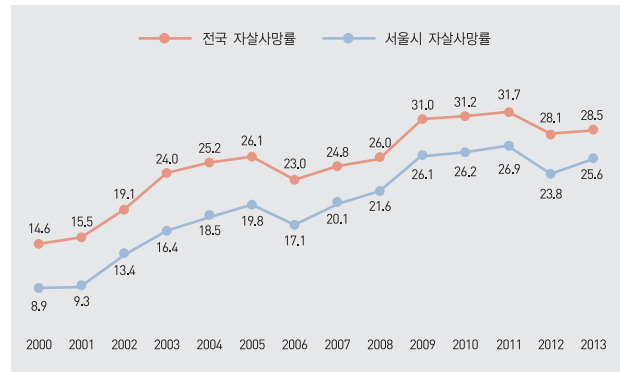
김동욱, 이구상, 이명수
D.W. Kim, G.S. Lee, M.S. Lee

1. 전국과 서울시 자살사망에 대한 비교

1) 자살사망률 연도별 변화추이(인구10만 명 당)

전국과 서울시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012년 큰폭의 감소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전국에 비해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사망률 연도별 변화추이('00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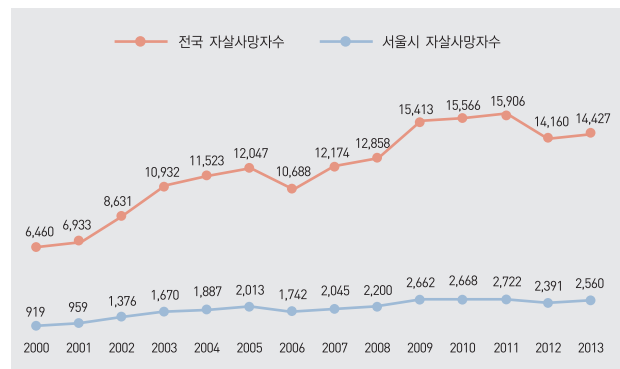


2) 자살사망자수 연도별 변화 추이

전국의 자살사망자수는 2009년 1만 5천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2과 2013년 2년 연속으로 1만 4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살사망자수는 2009년 2천 5백 명을 돌파한 이후 3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이어지다가 2012년 2천 3백 명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13년 2천 5백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사망자수 연도별 변화추이('00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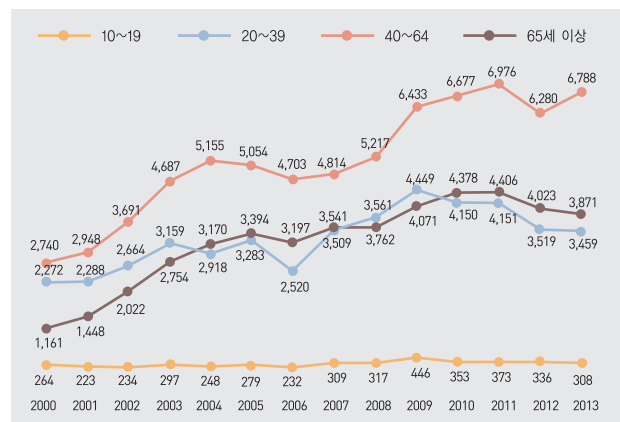


3) 연령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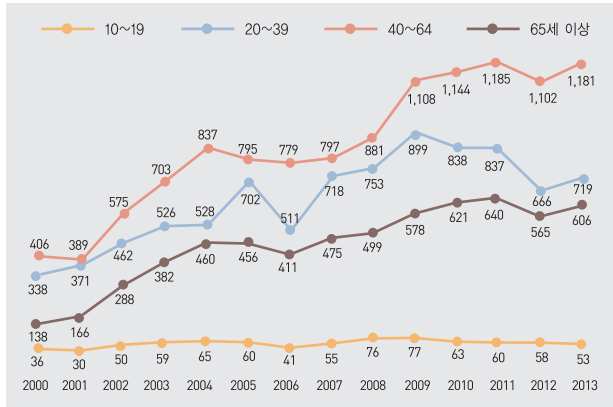
2013년 연령대별 전국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2012년에 비해 10세~19세(8.3% 감소), 20세~39세(1.7% 감소), 65세 이상(3.8% 감소)의 연령대에서는 감소를 보였으나, 40세~64세(8.1% 증가) 연령대의 자살사망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연령미상 1명

★ 전국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 서울시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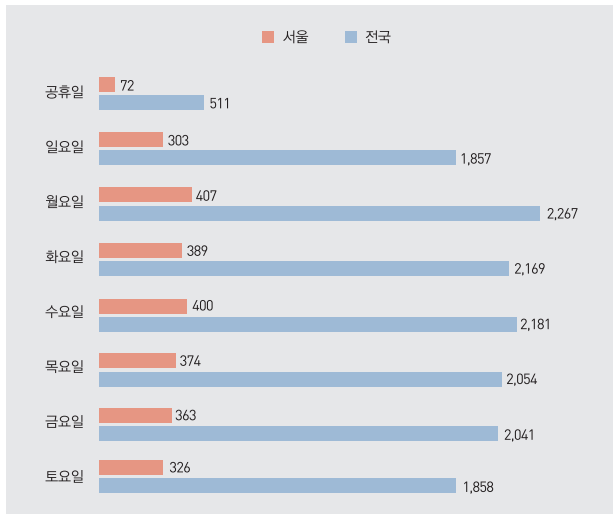
4) 서울시 연령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2013년 연령대별 서울시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2012년에 비해 10세~19세(8.6% 감소) 연령대에서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나, 20세~39세(8.0% 증가), 40세~64세(7.2% 증가), 65세 이상(7.3% 증가) 연령대의 자살사망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국과 비교했을 때, 10세~19세, 20세~39세,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큰 증가 추세를 나타낸 반면, 40세~64세는 오히려 전국보다 증가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미상 1명

★ 전국 서울시 요일별 자살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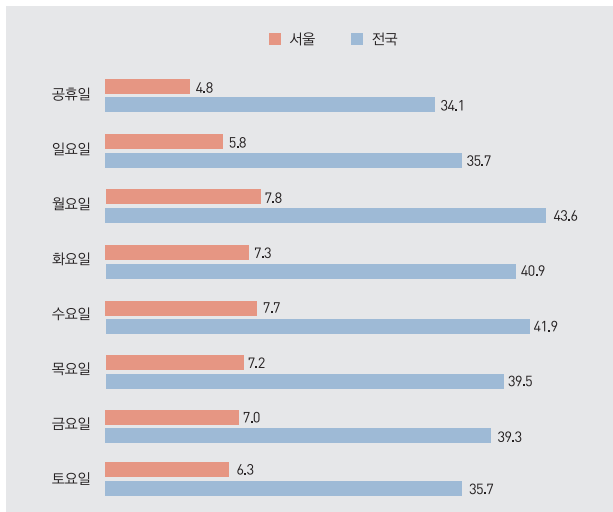


5) 전국, 서울시 요일별 자살사망자수

전국의 요일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공휴일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요일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공휴일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로 나타났다.

★ 전국 서울시 요일에 따른 1일 자살사망자수



6) 전국, 서울시 요일별 1일 평균 자살사망자수

전국의 요일별 평균 1일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공휴일(34.1명)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일요일(35.7명)과 토요일(35.7명), 금요일(39.3명), 목요일(39.5명), 화요일(40.9명), 수요일(41.9명), 월요일(43.6명)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요일별 평균 1일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공휴일(4.8명)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일요일(5.8명), 토요일(6.3명), 금요일(7.0명), 목요일(7.2명), 화요일(7.3명), 수요일(7.7명), 월요일(7.8명)로 나타났다.

7) 사망원인별 순위

사망원인별 순위에 있어서는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자살률이 전국과 서울시 모두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원인별 순위

	2010	2011	2012
전국	1 암	1 암	1 암
	2 뇌혈관 질환	2 심장 질환	2 뇌혈관 질환
	3 심장 질환	3 뇌혈관 질환	3 심장 질환
	4 자살	4 자살	4 자살
	5 당뇨병	5 당뇨병	5 당뇨병
	6 폐렴	6 폐렴	6 폐렴
	7 만성하기도질환	7 만성하기도질환	7 만성하기도질환
	8 간 질환	8 간 질환	8 간 질환
	9 운수사고	9 운수사고	9 운수 사고
	10 고혈압성질환	10 고혈압성질환	10고혈압성질환
서울시	1 암	1 암	1 암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3 심장 질환	3 심장 질환	3 심장질환
	4 자살	4 자살	4 자살
	5 당뇨병	5 당뇨병	5 당뇨병
	6 폐렴	6 폐렴	6 폐렴
	7 간질환	7 간질환	7 간질환
	8 만성하기도질환	8 만성하기도질환	8 만성하기도질환
	9 운수사고	9 운수사고	9 운수사고
	10 고혈압성질환	10 알츠하이머병	10 알츠하이머병

2.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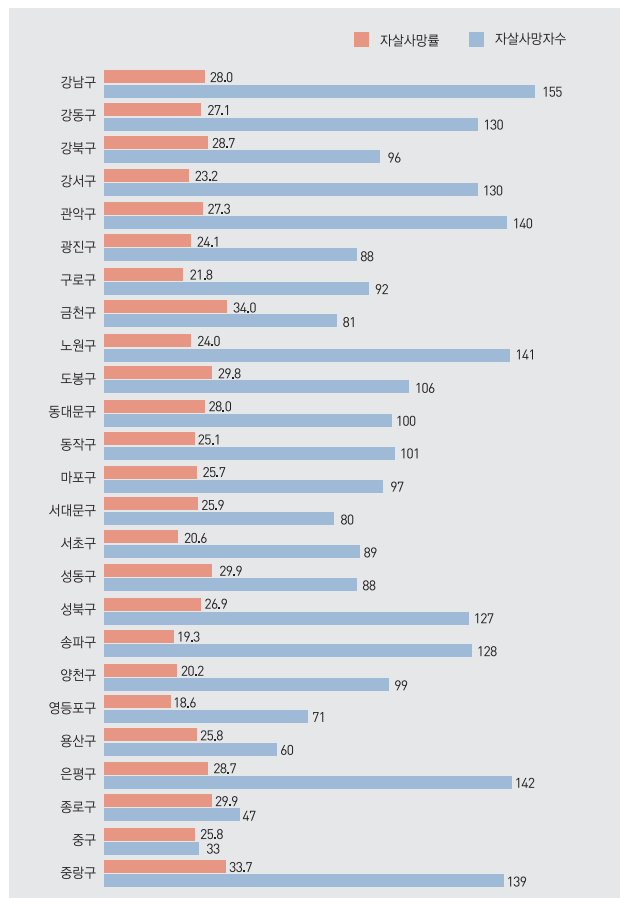
8) 25개구 자살사망자수 및 자살률

2013년 서울시 내 25개구 자살사망자수는 강남구가 1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은평구(142명), 노원구(141명), 관악구(140명)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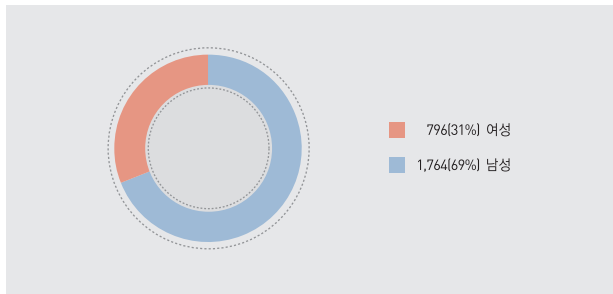
2013년 서울시 내 25개구 자살사망률은 2012년에 이어 금천구가 34.0명으로 2년 연속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중랑구(33.7명), 종로구(29.9명)와 성동구(29.9명), 도봉구(29.8)로 나타났다.

전국의 자살사망률(28.5명)과 비교할 때, 금천구(34.0명), 중랑구(33.7명), 성동구(29.9명), 종로구(29.9명), 도봉구(29.8명), 은평구(28.7명), 강북구(28.7명)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2012년 자살사망률 20명 미만이었던 자치구는 4개구로 서초구, 종로구, 광진구, 송파구였으나, 2013년에는 2개구 영등포구(18.6명), 송파구(19.3명)로 나타났다.

★ 25개구 자살사망자수 및 자살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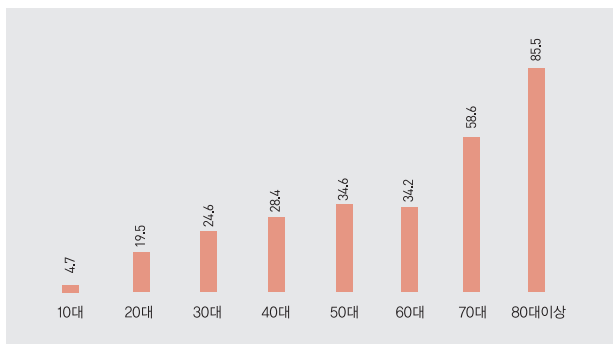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자살사망자수



9) 성별에 따른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성별에 따른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2.0배)와 비교할 때 남·여 간의 격차가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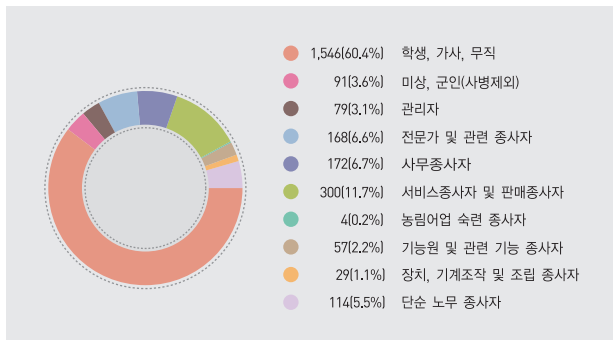
★ 연령대별 자살사망률



10) 연령대별 자살률

서울시의 연령대별 자살사망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2013년의 연령대별 자살률은 10대(5.0명→4.7명)와 60대(34.5명→34.2명), 70대(59.3명→58.6명)를 제외하고, 20대(15.9명→19.5명), 30대(23.9명→24.6명), 40대(25.7명→28.4명), 50대(32.4명→34.6명), 80대 이상(83.8명→85.5명)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직업별 자살사망자수



11) 직업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직업에 따른 자살사망자수는 가사·학생·무직이 전체의 60.4%(1,546명)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서로는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가 11.7%(300명), 사무종사자가 6.7%(172명)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6.6%(168명) 등으로 나타났다.

★ 혼인상태별 자살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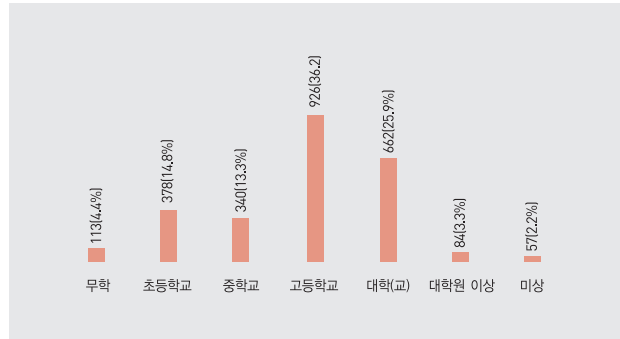
12) 혼인상태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자살사망자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1,077명(42.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미혼인 861명(33.6%), 이혼이 381명(14.9%), 사별이 226(8.8%)명으로 나타났다.

13) 교육정도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자살사망자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926명(36.2%)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662명(25.9%), 초등학교 졸업이 378명(14.8%), 중학교 졸업이 340명(13.3%), 무학이 113명(4.4%), 대학원 이상이 84명(3.3%)으로 나타났다.

★ 교육정도별 자살사망자수



14) 월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월별 자살사망자수는 3월이 243명(9.5%)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1월이 240명(9.4%), 4월이 238명(9.3%), 10월이 237명(9.3%)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반기 자살사망자수는 1,347명(52.6%(2012년 53.5%)), 하반기 자살사망자수는 1,213명(47.4%(2012년 46.5%))으로 나타났다.

★ 월별 자살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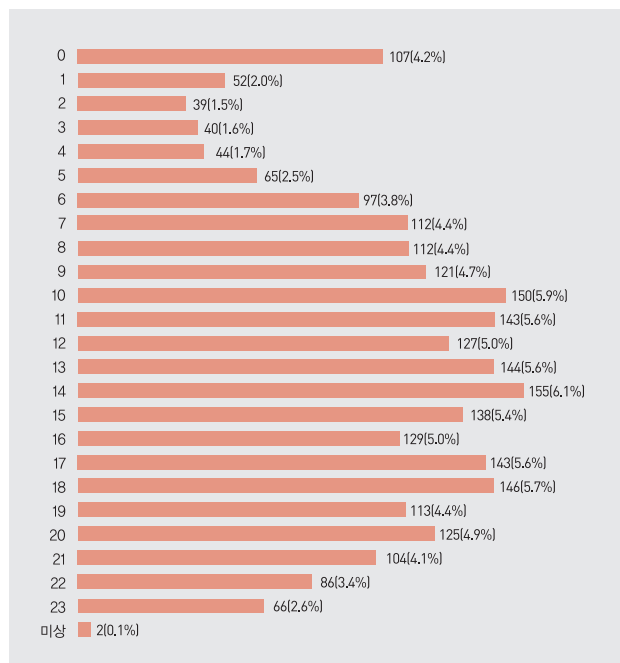


15) 시간별 자살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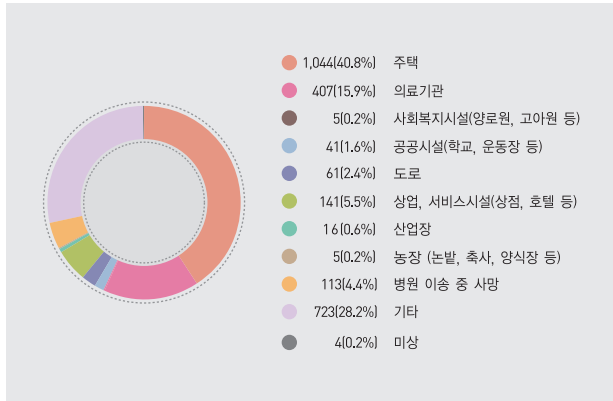
서울시의 시간대별 자살사망자수는 오후 14시가 155명(6.1%)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순서로는 10시가 150명(5.9%), 18시가 146명(5.7%), 13시가 144명(5.6%)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가장 낮은 빈도는 02시가 39명(1.5%)이었으며, 다음순서로는 03시가 40명(1.6%), 04시가 44명(1.7%)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 자살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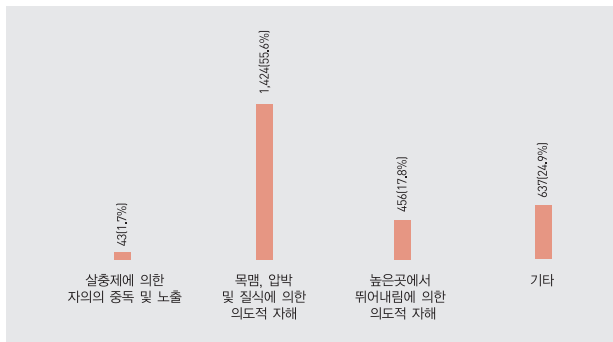
★ 장소별 자살사망자수



16) 장소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자살사망자의 사망 당시 장소는 주택 內가 1,044명(40.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서로는 의료기관이 407명(15.9%),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이 141명(5.5%)으로 나타났다.

★ 사망원인별 자살사망자수



17) 사망원인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사망원인별 자살사망자수는 목매,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가 1,424명으로 전체 자살사망자수의 약 5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순서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가 456명(17.8%), 살충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이 43명(1.7%)으로 나타났다.

★ 성·연령대 비교



18) 성·연령대 비교

서울시의 성별에 따른 연령별 자살사망자수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모두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사망률이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30대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40대에서 60대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70대부터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연령대별 자살사망자 비율에 있어서는 남성은 50대가 23.1%(40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서로는 40대로 19.8%(349명), 20대 15.4%(272명)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20대가 20.4%(16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순서로는 30대가 17.0%(135명), 40대가 16.1%(128명)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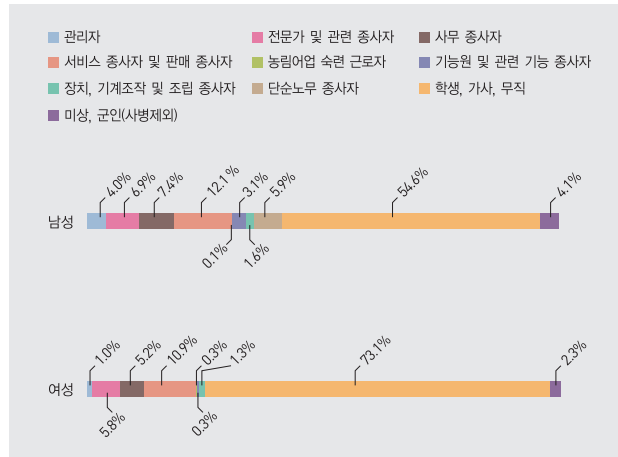
※ 남자 연령미상 1명

19) 성·직업 비교

서울시의 성별에 따른 직업별 자살사망자수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를 제외(남녀 모두 동일하게 2명씩 자살사망함.)하고, 남성이 모든 직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직업별 자살사망자 비율에 있어서는 가사·학생·무직의 경우 여성(73.1%)이 남성(54.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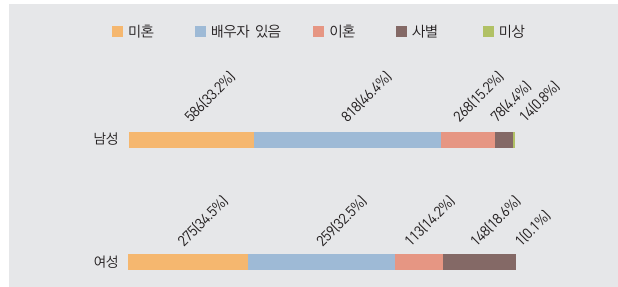
★ 성·직업 비교



20) 성·혼인상태 비교

서울시의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별 자살사망비율에 있어서 남성은 배우자 있음(46.4%(여성 32.5%)), 이혼(15.2%(여성 14.2%))이 높은 반면, 여성은 미혼(34.5%(남성 33.2%)), 사별(18.6%(남성 4.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혼인상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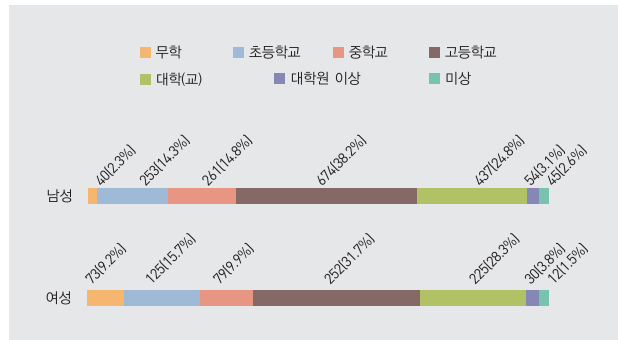


21) 성·교육정도 비교

서울시의 성별에 따른 교육정도별 자살사망비율에 있어서는 남성은 중학교(14.8%(여성 9.9%)), 고등학교(38.2%(여성 31.7%))가 높은 반면,

여성은 미학(9.2%(남성 2.3%)), 초등학교(15.7%(남성 14.3%)), 대학(교)(28.3%(남성 24.8%)), 대학원(3.8%(남성 3.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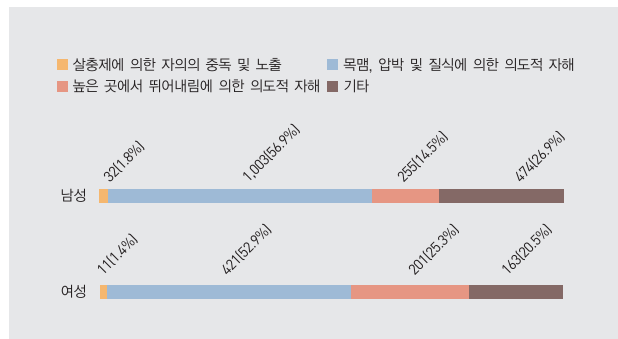
★ 성·교육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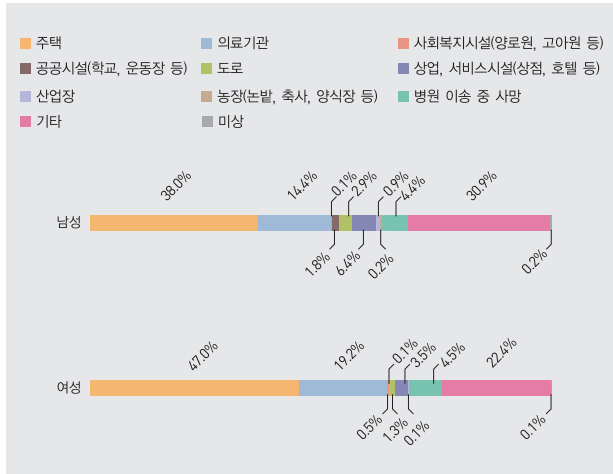
22) 성·사망원인 비교

서울시의 성별에 따른 사망원인별 자살사망비율에 있어서는 남성은 살충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1.8%(여성 1.4%)), 목매,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56.9%(여성 52.9%))가 높은 반면, 여성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26.9%(여성 20.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사망원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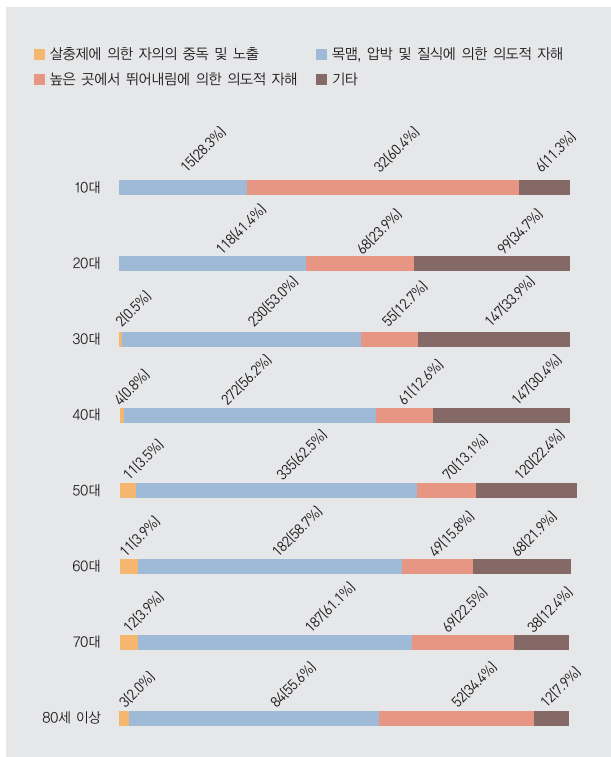
★ 성·사망장소 비교



23) 성·사망 장소 비교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성별에 따른 사망 장소비율에 있어서 남성은 대표적으로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6.4%(여성 3.5%))이 높은 반면, 여성은 주택(47.0%(남성 38.0%)), 의료기관(19.2%(남성 14.4%)) 등이 대표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사망원인 비교



24) 연령대·사망원인 비교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연령대에 따른 사망원인의 비교에서는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목매,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특히 50대가 6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70대(61.1%)와 60대(5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는 높은 곳에서의 뛰어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60.4%), 성인 및 노인의 사망원인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목매,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와 큰 차이를 보였다.

25) 연령대 · 사망장소 비교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연령대에 따른 사망 장소의 비교에서는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특히 80대 이상이 4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60대(44.2%)와 70대(4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는 의료기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35.8%), 성인 및 노인의 사망 장소와 차이를 보였다.

★ 연령 · 사망장소 비교

